

문제1

제시문 (가)의 1과 2는 사회 속 사람들의 이상적인 행동 모습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제시문들은 사회규범에 대한 견해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 우선 (가-1)은 사회의 안정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규범,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안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화 다원화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면 사회의 안정성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가-2)는 안정성이 아닌 유용성을 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유용성, 창조성을 위하여 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규칙화, 획일화된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으며 사람들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일탈적 사고가 사회적인 발전을 가져와 유용한 결과를 불러 온다고 주장한다.

(가-2)에서 말하는 일탈적 사고에 의한 결과물은 현대 언어에도 존재한다. 제시문 (나)의 ‘뽀샵질’부터 ‘머찌근’까지의 단어가 바로 그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원래 언어 규범에 맞을바른 표현(‘포토샵으로 사진을 꾸민다’와 ‘멋쩍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따라 형성된 일탈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 같은 신조어들은 정보 공유, 상호작용의 속도가 우선시되는 사이버 사회에서 줄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유용성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2)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줄임말들은 긍정적인 사회 일탈현상이다. 새로운 신조어의 사용이 없는 규칙화, 획일화된 인터넷은 정보 공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단어가 개발됨으로써 시간단축이라는 유용한 결과와 사회의 생동감, 기존 질서의 진화,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용성을 우선가치로 보는 (가-2)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의 형성을 바람직하게 볼 것이다.

제시문 (나)의 나머지 단어들, 즉 ‘손주병’부터 ‘등골 백팩’까지는 (가-2)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특정 행위나 상태들을 특정 단어로 개념화, 단어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타조세대는 노후에 불안이 있지만 노후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타조에 빗대어 개념화 한 단어이다. 개념화된 신조어들은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상황이나 행동들을 자신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가-1)에 따르면 개인들은 모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 자신만의 상황이라고 느낄 경우 심한 불안감과 사회에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어 사회유지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1)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현상들을 보편화하여 단어로 통용되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가-1)은 이러한 사회 규범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종사하도록 하며 잠재력까지도 발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단어 형성이라고 본다.

문제 2

제시문 (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규범, 법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에서는 마약류의 사용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다른 나라, 미국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는 합법임을 사례로 들어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 국가마다 규칙이 다원화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기 쉽고 가변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 또한 변하기 쉽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불법이었던 마리화나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합법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네덜란드는 사회 분위기가 보수화되어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 규범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의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는 사회 규범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인식과 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의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A국가와 B국가의 남녀 사법 시험 지원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은 각 국가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남자의 사법 시험 지원자 비율이 여성의 지원자 비율보다 많다. 이는 사회의 분위기가 남성의 사회 진출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A국가는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율이 1990년도에 17.2퍼센트에서 2008년에 38퍼센트에 이르러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여성의 지원율 증가는 사회 분위기가 여성에 사회 참여에 더 개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법 시험의 지원자 수도 1990년 709명에서 2008년에 100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법 시험의 중요성이나 유용성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2001년에는 남성의 사법 시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818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여성의 경우도 등락을 반복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불안정한 지원율의 등락은 A국가의 사회가 역동적이고 발전 중에 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A국가는 사회의 인식이나 분위기가 매우 가변적이고 개방적이다. (다)에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규범도 계속 바뀌고 있다.

A국가와 반대로 B국가에서는 1990년과 2008년의 남성과 여성의 지원자 비율이 남성은 62퍼센트, 여성은 38퍼센트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변화나 사회상이 변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한편 1990년의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 비율은 A국가의 2008년 비율과 같다. 이는 B국가가 1990년도에 이미 여성의 사회 참여에 좀 더 개방적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여성의 지원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B국가의 구성원들이 좀 더 원래 사회 제도와 규범을 유지하려는 보수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B국가는 이미 1990년도에 2008년 A국가의 여성 사법 시험 지원율과 같았는데 이는 B국가의 개화시기가 A국가보다 더 빨랐음을 뜻한다. B국가는 (다)에 따르면 인식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도 변하지 않는다. (다)의 인식과 법의 상관관계 주장에 따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A국가는 개화시기가 늦은 개발 도상국과 같은 국가일 것이며 B국가는 이미 개화가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